

추모사

오늘 우리는 왜군의 침략으로 인해 역사와 문화를 모두 잃어버릴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낸 사명당 유정대사를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살신성인하는 大乘 행자의 진면목을 보여 주셨던 사명당 유정대사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민족은 남의 땅을 유랑하거나, 갇은 고초를 겪었을 것이며, 세계사의 한 페이지 기록만으로도 남 남았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명대사 유정스님을 간절하게 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진·정유년의 왜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겼다면, 찬란한 민족 문화 유산을 세계에 자랑하거나 체육인과 예술인들이 세계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내세우며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쾌거는 이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과 우리글도 마음 놓고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후손들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와 민족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깊은 상처를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본의 의지로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속에서 절실하게 노력해야만 아름답게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과거사 소명에 대한 미온한 태도를 보면서 사명당 유정스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추모의 정을 깊이 가지게 됩니다.

5,000년 한민족 역사에 빛나는 큰 별이며, 한국 불교를 중흥하신 사명당 유정대사님이시여 !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이 어려운 현실을 굽어 살피시어, 남과 북이 분쟁과 갈등을 떠나보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룩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민족의 기상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민족이 앞장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화합하며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유무정의 일체 중생들이 안락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살피 주시옵소서!

불기2555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慈 乘 삼가 올림